

교회 및 지역 소식

칠십인 평의회와 정원회의 재조직



지난 10월 1일, 제146차 반연차 대회, 금요일 오전 모임에서 4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임명되고 27명의 총관리 역원이 다른 직책을 임명받는 등 대폭적인 변경이 발표되었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칠십인 제일 평의회가 다섯 명의 새로운 회원을 맞으면서 재조직되었다. 제일 평의회 회장으로 프랭클린 디 리차즈, 제임스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 디어도어 터틀,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디 랭스, 폴 에이치 던 형제가 지지되었다.

터틀 장로와 던 장로는 칠십인 제일 평의회 의직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다섯 분은 십이사도 보조로 수고하시던 분들이다.

2. 나머지 열 여섯 분의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엘마 소니, 스티어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알빈 알 다이어, 디어도어 엠 버튼, 버나드 피 브룩뱅크,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반덴버그, 로버트 엘 심슨, 오 레슬리 스톤,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로버트 디 헤일즈, 애드니 와이 고마쯔, 조셉 비 위스린

3. 지금까지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으로 수고하던 에스 딜위스 영, 하트막 렉터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장로는 계속 총관리 역원인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4. 관리 감독단 제2보좌에서 해임된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되었다. 그는 또한 텍사스주 산안토니오 선교부장으로 임명되었다.

5. 또 다른 세 사람이 총관리 역원이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되었다. 이들 세 사람은 교회 잡지 편집자요 기획자인 던 엘 라슨, 솔트레이크시티에서의

새로 편성된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장: 상좌,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상중,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상우,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중좌,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 중우, 닐 에이 맥스웰 장로, 하좌, 매리온 디 랭스 장로, 하우, 폴 에이치 던 장로.

사업가이며 아일랜드 더블린 선교부장으로 계속 봉사하게 될 로이든 지 데릭, 교회 중앙 구매자 책임자인 로버트 이 웰즈 형제이다.

6. 아이다호주 보이즈 출신의 제이 리차즈 클라크 장로가 페더스톤 장로의 대를 이어 관리 감독단 제2보좌로

교회 및 지역 소식

지지되었다.

지금까지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하던 분들이 추가되어,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 수는 칠십인 제일 평의회를 포함하여 모두 39명이 되었다.

열명의 제일 평의회와 정원회 회원이 지역 관리자로 임명되어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 하면서 교회의 일을 맡고 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와 에이 디버도어 터틀 장로가 남 아메리카,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가 멕시코와 중미, 버나드 피 브룩뱅크가 영국, 로버트 엘 심슨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애드니 와이 고마쯔가 일본과 한국, 조셉 비 워스린과 찰즈 에 디데이가 유럽, 제이콥 디오거가 동남 아시아를 관리한다.

또한 제일 정원회의 여섯 회원이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로렌 시 던이 호주에서, 진 알 쿡이 우루과이에서,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가 칠레에서, 조지 피리가 아리조나에서, 엠 러셀 벨라드 이세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그리고 페더스토운 장로가 텍사스에서 봉사하고 있다.

현재 총관리 역원의 총 수는 58명이다.

칠십인 제일 평의회

프랭크린 디 리차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 디버도어 터틀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디 행스
폴 에이치 던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엘마 소니
스터얼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앨빈 알 다이어
디어도어 엠 버튼
버나드 피 브룩뱅크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반덴버그
로버트 엘 심슨
오 레슬리 스토운
더블류 그랜터 뱅저터
로버트 디 헤일즈
애드니 와이 고마쯔
조셉 비 워스린

에스 딜위스 영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 던
진 알 쿡
찰즈 에 디데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리
칼로스 이 애시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본 제이 페더스토운
던 엘 라슨
로이든 지 데릭
로버트 이 웰즈



새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은 네 명의 '장로': 상좌,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상우, 던 엘 라슨 장로, 하좌, 로이든 지 데릭 장로. 하우, 로이트 이 웰즈 장로.

관리감독단 제2보좌로 부름 받은 클라크 형제

십이사도 지역 대표의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가 10월 1일 대회오전 모임에서 관리 감독단 제2 보좌로 새로이 지지되었다.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부름을 받은 본 제이 페더스토운 감독의 뒤를 잇게 된다.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출신인 그는 1952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바바라 진 리드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8남매를 두고 있다.



교회 및 지역 소식

서울 스테이크 대회

지난 11월 6일, 7일 양일에 걸쳐 4/4분기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제 2 와드의 새로운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십이사도 지역 대표인 폴 시 앤드러스 장로의 감리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가정에서의 사랑이 강조되었다.

6일 토요일 역원회에서 고등 평의원 이 남선 형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부부 관계, 부부와 연로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어서 앤드러스 장로는 총관리역원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말씀을 인용하여 원만한 부부 관계는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장점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룩할 수 있으며, 한번 실수로 일생 동안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회개하여 현명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일 일요일은 지난 대회와는 달리 장소 관계로서 서울 스테이크 산하의 와드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총회를 오전과 오후에 가졌다. 모두 138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최 육환 부장, 김 창선 부장, 유진 피 털 서울 선교부장,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앤드러스 장로 등의 순서로 말씀하였는데, 모두 가정에서의 성공과 선교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오후 총회에서는 멀리 성남 지부에서 60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었으며, 털 선교부장은 지난 1월에 지부로 조직된 이래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성남 지부의 회원들을 일어서게 하여 특별히 격려해 주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제사 6명, 장로 4명이 지지와 성임을 받았고, 응시 고등 평의원 6명이 새로 부름을 받았으며 제 1 와드와 제 2 와드 그리고 제 3 와드 감독단 개편이 있었다.

서울 스테이크 제1와드 감독단 개편

지난 11월 7일 스테이크 대회에서 서울 스테이크 제 1 와드 감독단 개편이 있었는데, 감독으로 손 승은 형제, 제 1 보좌로 조 성호 형제, 제 2 보좌로 이 홍래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사진: 말씀하는 손 승은 감독)



광주 지방 대회

지난 10월 23~24 양일에 걸쳐 부산 선교부 산하의 광주 지방부는 금년도 4/4분기 지방 대회를 광주 지부에서 개최하였다.

여수, 순천, 목포, 광주 등지에서 모인 250여 성도들은 “나와 내 집은...”이라는 주제로 자신들의 신앙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다.

23일에는 제 3 회 전시회와 지부 합창경연 대회 등으로 대회의 의의를 깊게 하였다. 24일 일반 총회는 부산 선교부장 제 1 보좌인 장 재환 형제의 감리로 진행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최 재희 형제, 최 형수 형제, 이 광준 형제는 장로로 지지, 성임 받았고, 김 광식 형제는 평위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서울 스테이크 구기 대회

지난 10월 9일 스테이크 체육 대회에 이어 스테이크 구기대회가 개최되었다.

각 와드 대항 토너먼트에서 배구에서는 제 1 와드와 제 9 와드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제 1 와드가 제 9 와드의 북명을 2 대 1로 눌렀고, 축구에서도 제 1 와드와 제 8 와드가 자웅을 겨루었는데, 이 게임에서도 제 1 와드가 3 대 0 으로 승리했다.